

## 줄입시다, 항생제 사용!

- ✓ 우리나라 닭에서 항생제 사용량은  
축산 선진국의 8.2배

## 지킵시다, 축산물 안전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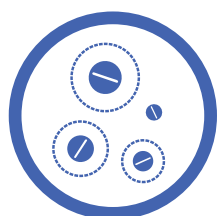
- ✓ 국내 소비자 91.3%  
가축 항생제 과다 사용 우려

### 항생제 안전사용 3원칙



#### 1 수의사 처방

수의사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은  
항생제만 사용합니다.



#### 2 감수성 검사

유효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.



#### 3 사용설명서 준수

정해진 용량과 투약 경로를 준수합니다.

### 양계에서 주의해야 할 항생제

엔로플록사신

콜리스틴

## 마지막

## 선택 항생제

- ✓ 세프트이퍼는 양계 허가 항생제 없음
- ✓ 엔로플록사신은 산란계 사용금지



농림축산식품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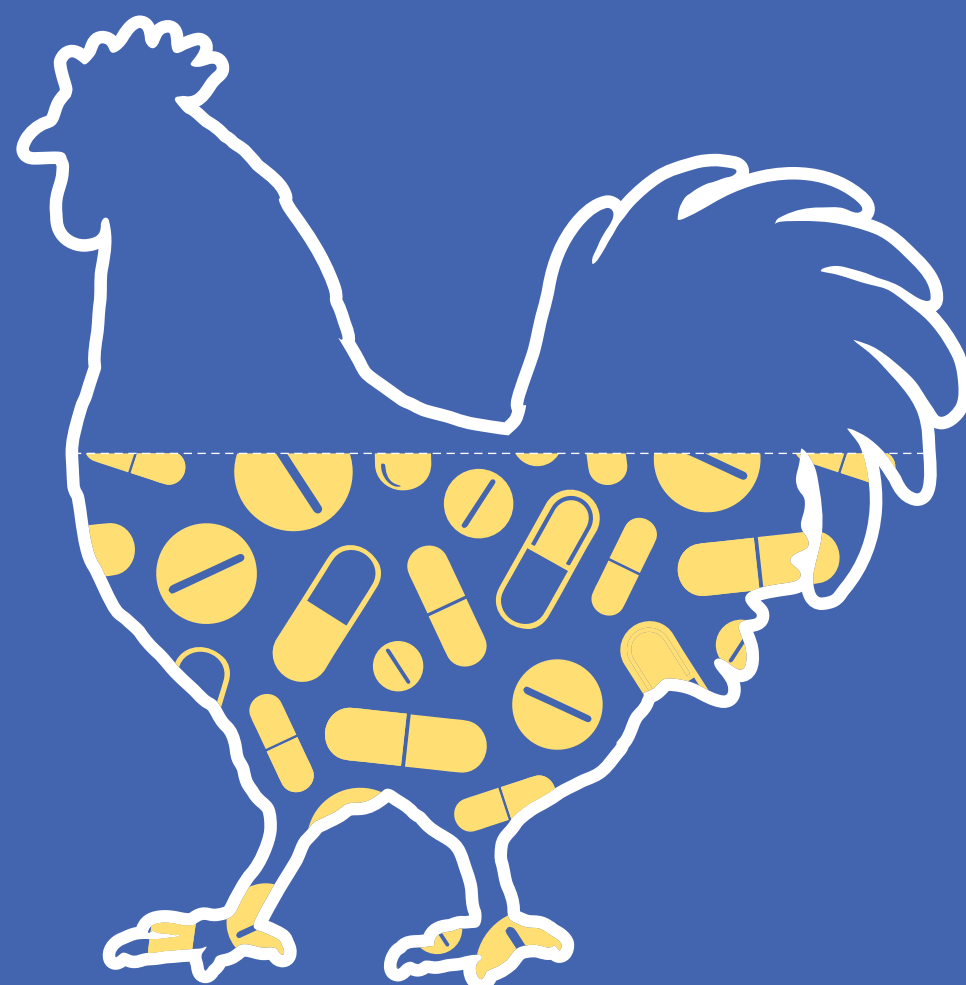


농림축산검역본부

수의사 상담

# YES

모두를 위한  
항생제 신중 사용,



바로 당신의 실천이  
필요합니다!

# NO

관행적 사용

## 양계에서 주의해야 할 항생제

- ✓ 축산에서 **남용된 항생제**는 내성균을 유발하여 소비자에게 위험이 됩니다.
- ✓ 사람에게 사용되는 항생제는 축산에서 가급적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.
- ✓ 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습니다.

세계보건기구 지정  
위험 항생제

## 마지막 선택 항생제

엔로플록사신

콜리스틴

- ✓ 세프트오퍼는 양계 허가 항생제 없음
- ✓ 엔로플록사신은 산란계 사용금지

**3초마다 1명이** 항생제  
내성균 감염으로 사망합니다.

항생제 내성 사망자는 인플루엔자, 결핵,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를 합친 것 보다 많습니다.

(OECD Policy Insight, 2016)



##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.

축사 위생과 건강한 사육 관리를 통해  
항생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### 알고 계세요?

- ✓ 가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면 항생제 내성균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✓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습니다.
- ✓ 항생제 내성균은 우리 가족과 소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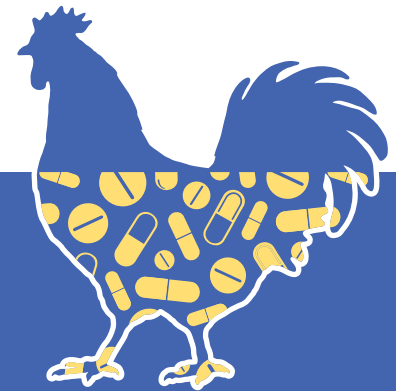


농림축산검역본부

### 항생제 신중 사용 안내



모두를 위한  
항생제 신중 사용,



바로 당신의 실천이  
필요합니다!

**NO**

관행적 사용

## 항생제 남용은 농가의 손실



감수성 검사 없이  
**효과 없는 항생제**를 쓸 경우  
치료가 되지 않습니다.



투약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 
**내성균**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.



과다 투여로 농가의  
**동물약품 비용**이 증가합니다.



농장 내 내성균이 생기면  
향후 더 큰 **경제적 피해**로  
이어집니다.

## 항생제 신중 사용,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!



### 1 수의사 처방

수의사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은  
항생제만 사용합니다.



### 2 감수성 검사

유효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.



### 3 사용설명서 준수

정해진 용량과 용법 그리고  
투약 경로를 준수합니다.

## 소비자의 불신 심각



**91.3%**

축산에서 항생제  
과다 사용 우려

**94%**

무항생제 축산물  
구입 희망

(농림축산검역본부 설문, 201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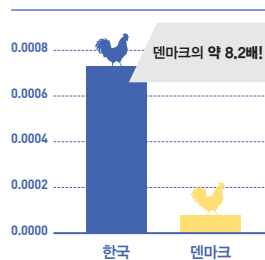
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 
축산선진국의

**8.2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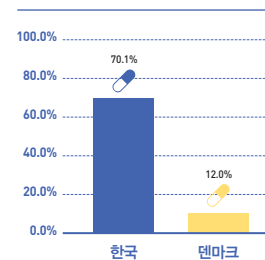
국내 항생제 내성률은  
축산선진국의

**5.8배**

국가별 양계 개체수 대비  
항생제 사용량 비교(kg/마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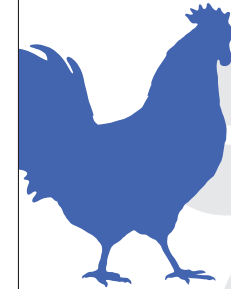


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  
내성률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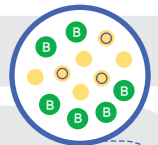


(국가별 항생제 사용량 보고서 및 통계청 자료, 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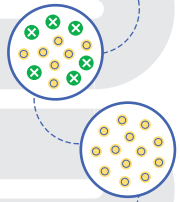
## 가축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



가축의 장에는 많은  
세균이 있습니다.



낮은 농도로 항생제를  
계속 투여하면  
내성이 생긴 균들이  
생겨납니다.



내성균은 가축은 물론, 식품을  
통해 사람에게 감염됩니다.



내성균은 축사 주변의  
환경으로 전파됩니다.